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간제한에 헛걸음만

광주 10만8천명 대상 보건소 5곳 매일 3시간 제한

정부, 재정·보건인력 등 지원없이 시행 혼란 가중

노인 오모(71)씨는 최근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광주의 한 보건소를 찾았다가 헛걸음만 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매일 3시간씩만 접종시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오씨는 “업무시간인데도 접종시간이 끝났다며 다음날 오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시행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인력·재정 지원

을 외면해 보건행정이 혼란을 빚고 있다. 보건소들이 업무과증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접종시간을 제한하면서 접종 대상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는 매일 오전 2~5시까지 3시간씩, 광산구는 오전 9~11시 30분까지 2시간30분씩만 접종업무를 보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접종시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10만8586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을 시작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노인

의 폐렴증과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보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접종시간을 제한하면서 접종 대상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는 매일 오전 2~5시까지 3시간씩, 광산구는 오전 9~11시 30분까지 2시간30분씩만 접종업무를 보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접종시간에 대해 자체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접종시간을 알리는 기본적인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보건소마다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했던 노인의 불만이 이따로 있다.

보건소들은 일부 노인의 불만은 알지만, 업무시간 내내 접종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방접종 외에도 보건행정, 질병관리, 방문간호, 정신건강, 위생지도 등 해야 할 업무가 수십 가지에 이른다는 게 그 이유다.

광주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무료접종 등) 보건복지사업은 대폭 확대한 반면 보건인력은 보강하지 않아 보니 업무처리에 한계가 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도 자원봉사 대축제’

강당에서 열린 ‘나눔 2013 전남도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올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165억 징수 작년比 12억 늘어… 골프·해외여행 수심차례

광주시는 “올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을 출국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들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2억7000만원을 체납한 박모(73)씨는 지난해 12차례 해외를 다녀오는 등 10년간 23차례 출국했다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또 다른 박모(43)씨는 1억4300만원을 체납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5차례 출국하는 등 10년간 73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출국금지된 체납자 중 정도(59)씨

는 6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도 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들은 골프와 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락이 두절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 10월 말까지 16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54억원)보다 징수액이 12억원 늘었다.

김희창 광주시 체납관리담당은 “세금징수를 고의로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 321명의 근무 태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학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수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는 올해부터 행정·기술고시 등으로 합격한 신임 사무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간 수습 교육을 받는 ‘지방 수습 근무제도’를 시범·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지방 수습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행부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행부, 신임사무관 10명에 경위서 지시

문제점 발견땐 징계… 전국 17개 시·도 집중 점검

광주시에 배치된 신임 수습 사무관들의 근무태도가 영향이라는 지적

<광주일보 4일자 1면>과 관련, 안전행정부가 해당 사무관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안행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의 복무 상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4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난달 1일부터 광주시에서 수급 교육중인 신임 사무관 10명의 근무태도와 관련해 경위서를 제출도록 지시했다.

안행부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 321명의 근무 태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학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수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는 올해부터 행정·기술고시 등으로 합격한 신임 사무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간 수습 교육을 받는 ‘지방 수습 근무제도’를 시범·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지방 수습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행부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서석대 전망대 2곳 신설한다

문화재청, 주상절리대 보호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무등산 서석대 일대에 전망대 2개가 신설된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를 열고 ‘무등산 주상절리대 내 훠손 탑방로 정비’를 위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요청’을 결했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에서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일대는 관람객의 증가로 주변이 훠손 정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시설, 전망대 등의 설치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치될 전망대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서석대와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에 따라 최근 공사에 착공, 조만간 신규 전망대 2개소(31.15㎡·41.56㎡)를 서석대 일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7년 설치된 데크

시설(길이 60m, 넓이 1.5m)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도 진행한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측은 지난 9월 2억원을 들여 서석대 인근에 전망대 3곳과 목재 데크 1곳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천연기념물을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대신, 철재 구조물(3m)을 포함한 전망대 1곳과 목재 데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문화재 6752건 보존관리 종합 점검나서

문화부·문화재청 ‘특별점검단’ 구성… 사전예방시스템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국가 및 지방자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종합점검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일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 분석·진단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중심의 정책 관심에서 탈피하고 상시(정기) 모니터링 등에 의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점검 과정이나

결과의 전문성·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100명 규모의 ‘중요문화재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단장인 박언곤 흥의대 명예교수 지휘 아래 15명 안팎인 ‘점검 평가위원회’와 ‘전문가그룹’을 둔다. 합동점검반은 전국을 ▲서울·인천·경기(손영식 한국전통건축연구소 대표) ▲부산·울산·경남·제주·정명섭(경북대 교수) ▲대구·경북(홍승재 원광대 교수) ▲광주·전남(박강철 조선대 명예교수) ▲충남·전북(홍승재 원광대 교수) ▲대전·강원·충북(박경원 강원대 교수)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활효안은 반장).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시도문화재위원회나 전문위원 등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지정문화재 합동점검단’을 꾸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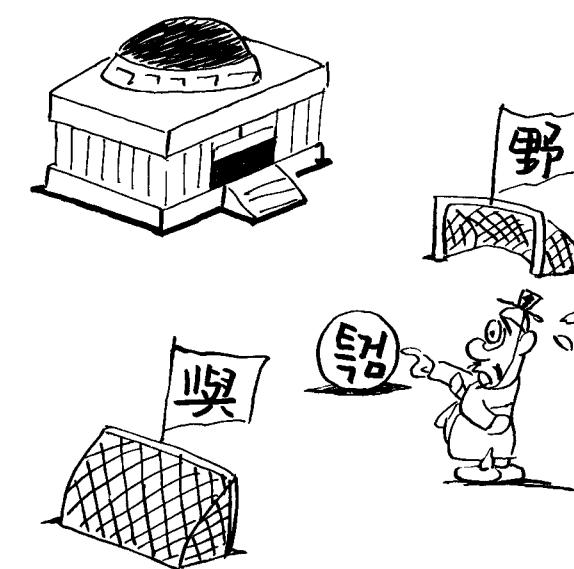
1면 ‘주민소환투표’서 계속

주민소환투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투표를 놓고 찬반으로 갈리진 구례민심은 진행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서군수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내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열된 투표운동 등으로 발생한 상처도 깊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공동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 양측 간 선거운동기간 이의제기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 김종두



차라리 이 방법은 어떤지?!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 가능!
- 특례보증 | 햄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궁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각지점: 616-3268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주임급) 남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3. 급여

- 연봉제(연접 후 결정)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